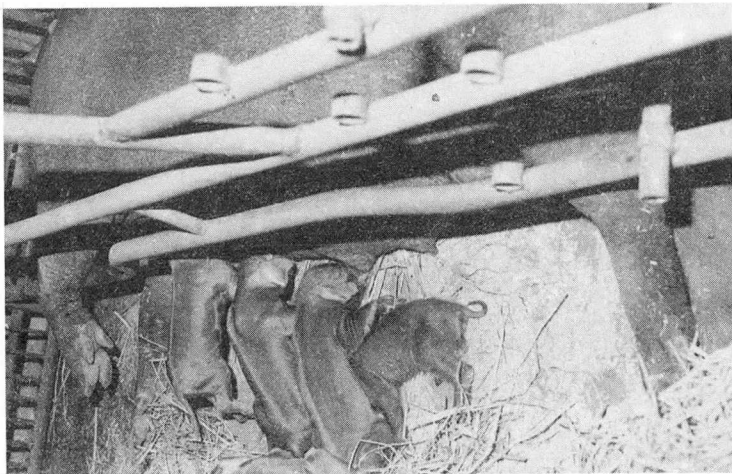


겨울철 무간호 분만시 주의사항

특집
겨울철
돼지 생산성 향상
관리 포인트



우리나라의 양돈규모는 과거의 부업형 규모에서 점차 전업화 내지 기업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UR협상 타결로 돈육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돈육 생산이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의 양돈산업은 농후사료의 원료사료를 외국산 도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원료의 비용절감은 매우 어렵다. 반면에 도시산업화 물결에 힘입어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3D현상으로 양돈현장의 노동력 조달의 어려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생산비

를 증가시키는 요인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급여, 분노처리, 돼지관리 등의 관리작업의 생략화로 노동력 감소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방안이 요구된다. 자돈분만시에도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무간호분만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겨울철에 무간호분만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간호분만 요령

돼지는 주야간에 분만비율이 비슷한 관계로 주간 분만시는 관리자의 분만간호가 쉽지만, 야간 분만시는 분만간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무간호분



이 장 형
(축산시험장 양돈과)

만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간호분만시는 분만동방 내에 분만책을 반드시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무간호분만의 방법은 분만책 후면을 경사지게 하고 그 뒤에 보온상자를 설치하여 분만된 신생자돈이 분만 직후 자동으로 보온상자로 굴러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분만책 이용시는 분만동의 후미부분과 복부부분에 보온등을 설치하여 국소보온으로 신생자돈이 분만시 추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만책 뒷쪽에 보온상자를 설치하는 방법은 분만책 시설시에 후면이 경사가 지도록 시설하고 별도로 분만시에만 보온상자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시설이 요구된다. 이 경우는 신생자돈이 후미 보온상자로 굴러들어간 후 따뜻한 보온상자에서 자체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여 보온상자에서 일어나와 어미의 젖을 찾아서 포유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두번째의 분만동 후미와 복부부분에 보온등을 설치하는 방법은 분만전 2~3일전부터 분만시까지 보온등을 설치해주는 방법으로서 분만직후의 신

생자돈이 보온등 아래의 따뜻한 장소에서 원기를 회복하여 어미의 젖을 찾아서 초유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2. 겨울철 무간호분만을 성공시키는 요령

무간호분만시는 출생 직후부터 포유 개시까지 동안에 압사, 한냉사, 난산 등으로 신생자돈의 폐사가 많을 수 있다.

무간호분만을 실시할 경우는 가사상태의 자돈이나 태반에 쌓여서 분만되는 자돈은 대개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추위에 의한 한냉사나 난산시에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고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무간호분만시에는 분만동방 내의 온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절기에 분만동방 내의 온도를 18~20℃ 정도로 보온하고 분만책은 적외선보온등, 보온매트, 바닥보일러, 가스히터 등을 이용하여 자돈분만 장소에 국소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의 후부와 복부부

“

무간호분만시에는 자돈의 압사, 허약사, 한냉사 및 난산시 신생자돈의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만실 전체의 보온에 주력하고 건강한 자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임신 말기에 모든의 건강상태를 자주 점검하여 모든의 체력관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에도 보온등을 설치하여 신생자돈의 한냉사를 막아준다.

신생자돈은 출생 후에 체력이 회복되기까지 수시간동안은 자돈이 자체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위의 온도가 춥게 되면 신생자돈의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서 활동이 둔해지고 추위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되므로 소화기 및 호흡기 등 질병의 2차감염을 입게 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표 1〉 분만시 복부 및 후부 보온 효과

구분	생존자돈수	1주령자돈수	생존률
복부 보온	11.4두	9.2두	80.7%
복부 와 후부 보온	11.6두	10.1두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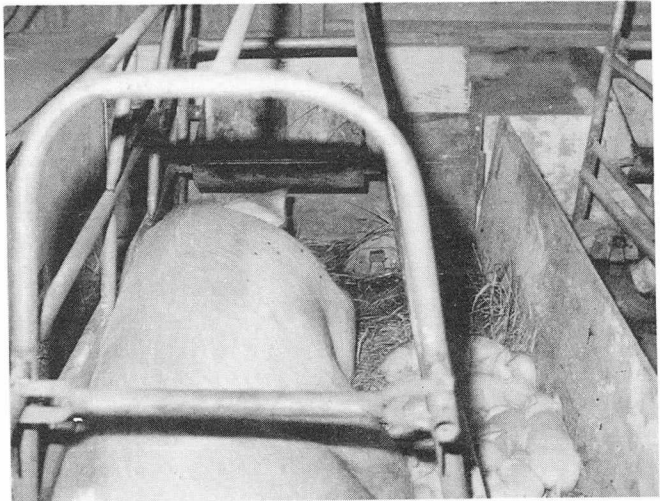
나. 활력이 있는 건강한 자돈을 생산한다.

분만시에 자돈의 활력이 건강한 상태의 자돈은 분만 직후 자력에 의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모돈의 유두를 찾아가는데 훨씬 양호하다. 그러나 허약하거나 체중이 가벼운 신생자돈은 분만 직후에 체력회복이나 거동이 불량하여 위축돈이 되거나 한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활력이 좋은 자돈은 건강한 모돈에서 태어나게 되므로 모돈을 튼튼하게 키워서 활력이 좋은 자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2〉 자돈 생시체중에 따른 생존율 비교

생 시 체중(kg)	0.5	0.7	0.9	1.1	1.4	1.6
생존율 (%)	16	39	59	74	86	95

분만시 자돈의 생시체중이 가벼우면 자돈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돈의 체중이 작으면 체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체열손실이 많으며, 포유시의 포유경쟁에서도 약하여 위축자돈이 되기 쉽다. 따라서 분만시 자돈의 체중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는 임신후기에 모돈의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임신후기에 사료급여량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전체 영양소 섭취량이 감소하여 태아의 발육이 불량하여 자돈의 생시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임신전기간 동안에 사료를 너무 과도하게 급여하면 과비로 인하여 난산이나 자돈의 사산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양상태의 모돈에 과도한 사료급여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돈의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자돈의 생시체중이 작거나 자돈의 체중이 균일하지 못한 모돈에게는 임신후기의 태아발육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 사료섭취량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한다.

3. 겨울철 무간호분만시 주의할 사항

무간호분만시에는 관리자가

분만간호를 하지 않게 되므로 태어난 신생자돈이 자력으로 원기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① 동절기에는 한냉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분만사에는 온풍기나 난로를 설치하여 돈방 내부 온도를 18℃이상 유지하고 자돈이 분만하는 장소에는 바닥보일러, 보온매트, 보온등이나 보온상자를 설치하여 30℃내외를 유지해 주어서 분만 직후에 자돈이 추위에 의한 한냉사나 허약자돈 발생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② 분만시 반 가사상태로 태어난 자돈이나 태막을 덮어쓰고 태어난 자돈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수시로 분만돈방을 순찰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 추위로 위축되어 허약한 신생자돈은 40℃의 온수에 담구어 체온상승을 충분히 시킨 후 몸을 잘 닦은 다음 보



온상자에 넣어 체력을 회복시킨다.

③ 허약자돈이 태어날 때는 포유를 하지 못하여 쇠약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체중이 0.5kg이하로 극단적으로 허약한 자돈은 보행 불량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어 도태대상이 되지만, 0.8kg이상에서 신생자돈이 자력으로 젖을 빨지 못하는 혼수상태에서 자돈은 약간의 간호로 정상자돈으로 생존시킬 수 있다.

④ 신생자돈의 압사방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분만돈사의 모돈은 분만책 내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자돈압사가 없을 것 같으나 출생 직후에 자돈이 포유를 하려고 왔다갔다 할 때 모돈이 눕거나 돌아누울 때 자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자는 분만돈방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자돈

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⑤ 분만책의 양측 간격은 보온상자를 설치한 쪽을 90cm, 다른편 쪽은 50cm 정도면 좋다. 또 보온상자와 분만책과의 간격은 최소한 약 30cm의 공간이 필요하다.

모돈이 분만책 내에 누울 경우에 모돈의 다리가 분만책 밖으로 나갔을 때 모돈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에 다리가 있는 장소에 있는 신생자돈은 모돈의 다리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외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⑥ 분만책에는 자돈이 활동공간을 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만 1주후에는 분만책의 조절책의 간격을 넓혀서 모돈의 활동공간을 넓게 하고 자돈에게도 운동공간을 넓혀 준다.

4. 맺음말

돼지의 분만은 주야간에 비슷한 비율로 분만하게 되는데, 야간에 분만하는 돼지의 분만 관리가 양돈농가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분만 2~3일 전에 분만돈의 후부와 복부부위에 보온등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야간에 분만하는 돼지라도 무간호분만을 실시하여 분만관리시 노력절감에 의한 자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간호분만 관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간호분만시에는 자돈의 압사, 허약사, 한냉사 및 난산시 신생자돈의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만실 전체의 보온에 주력하고 건강한 자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임신 말기에 모돈의 건강상태를 자주 점검하여 모돈의 체력관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분만사 내부의 온도를 18℃이상 유지하고 자돈분만 장소는 30℃내외를 유지하여 자돈이 추위에 의한 한냉사를 방지하고, 위축돈의 발생을 막아주는 것이 무간호분만시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점이라 할 수 있다.